

# 경주시 주택 유형별 생활적 특성 연구

## A Study on Living Characteristics by Type of Houses Located in Gyeongju City

이종석\*                      이윤정\*\*                      정준현\*\*\*                      손철수\*\*\*\*  
Lee, Jong-Such              Lee, Youn-Jung              Jeong, Jun-Hyun              Son, Cheol-S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sidential cultural attributes by analysing typological and living characteristics while focusing on various types of houses located in Gyeongju city, bas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city.

In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suggest methods for planning residential construction which satisfies requirements of Gyeongju citizens for living environment and considers its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housing type-related questionnaires with 203 residents to find out their current living types, as well as their preferable living types in the future, during the period from the 16th to 18th day of August 2007.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14, a statistical program,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drawn from the analysis.

키 워 드 : 경주, 주택유형, 생활적 특성  
Keywords: Gyeongju, house type, living characteristics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도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생활양식은 인간 개개인 본연의 특성은 물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무척이나 다양하게 펼쳐지며, 이를 담아주는 도시의 모습도 인간의 생활양식만큼이나 그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또한 도시는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 혹은 계획적으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적인 장소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며,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그 지방의 풍속과 생활을 반영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도시 이미지와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대 도시형태와 유적, 유물이 전 반적으로 출토, 보존되고 있는 문화·역사 도시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10대 유적지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경주시민들은 경주가 관광도시, 역사도시, 문화 도시라는 인식<sup>1)</sup>에는 변함이 없으나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화·복지시설과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주는 문화재의 점적, 선적, 면적 차원을 넘어 도시적 차원으로 문화·역사적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그 지역의 지형이나 자연적 조건과 주거지와 주거 건축에 대한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주민의 '생활상'을 통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특색 있는 도시를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상징적인 주거지를 '보전'하고, 과거의 기억을 통하

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주거지·주택을 '재생'해 나가면서, 동시에 역사·문화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주택을 '개발(창조)'해 나감으로써 생활상을 통하여 문화 역사적 맥락이 표현되는 도시적 특성을 떨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주지역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주택 유형들을 대상으로 유형학적, 생활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주지역의 주거 문화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경주지역의 내재자인 시민들의 생활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경주의 역사·문화적 맥락성을 유지하는 주거건축의 건축계획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 거주주택의 유형별 생활방식과 미래의 선호 생활방식에 관하여서는 거주자들의 생활행태 중 취침, 식사, 응접, 단란, 의례 행위가 주택유형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물론 생활방식은 주거공간의 물리적 조건(규모와 실의 구성상태 등), 가족 구성적 조건(가족의 수, 가족의 구성형태, 연령, 직업 등), 생활 도구적 조건(가구 및 가전제품의 소유형태 등)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유형별로 대체적인 공통적 경향을 띠게 됨으로, 경주지역 거주자의 생활적 특성도 이러한 제조건에 의하여 대체적인 공통적 경향성을 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안방은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로서 비교적 큰방의 개념을 띠는 방을 통칭하였으며, 거실은 한옥의 마루를 포함하여 소파나 장식가구가 놓여있는 공간으로서 이중 주택의 경우는 가족행위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층의 거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부엌은 대부분 부엌 공간에 식탁을 둔 DK형식이 일반적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주 도시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유형별 203부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2007년 8월 16일 - 18일에 이루어졌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4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 정희원(주거자),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 정희원(교신저자),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계명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Ph. D.

1) 경주시, 2020 경주 도시기본계획, 경주시, 2004, 12, 7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II. 주택유형별 생활방식 분석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체 203명의 설문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사회적 변인은 성별, 연령, 직업, 가족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거주특성은 주택유형과 현주택에서의 거주년수, 그리고 경주시에서의 거주년수로 분류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구분		구분	구분		
	N	%		N	%	
성별	남	112	55.2	한옥	35	17.2
	여	91	44.8	1층 양옥	44	21.7
연령	20세 미만	5	2.5	2층 양옥	57	28.1
	20-29세	37	18.2	아파트	35	17.2
	30-39세	31	15.3	연립주택	32	15.8
	40-49세	40	19.7	5년 이하	75	36.9
	50-59세	39	19.2	6-10년 이하	32	15.8
	60세 이상	51	25.1	11-20년 이하	47	23.2
직업	학생	31	15.3	21-30년 이하	29	14.3
	회사원	25	12.3	31-40년 이하	15	7.4
	공무원	7	3.4	41년 이상	5	2.5
	전문직	10	4.9	5년 이하	28	13.8
	자영업	51	25.1	6-10년 이하	13	6.4
	전업주부	52	25.6	11-20년 이하	38	18.7
가족구성	기타	27	13.3	21-30년 이하	38	18.7
	부모+자녀	130	64.0	31-40년 이하	42	20.7
	조부모+부모+자녀	13	6.4	41-50년 이하	17	8.4
	조부모+부모	3	1.5	51년 이상	27	13.3
	부부	41	20.2			
	독신-자가	14	6.9			
	편조부모+부모+자녀+조카	2	1.0			

### 2. 취침 방식

주택유형별로 거주자의 취침방식을 온돌식, 침대식, 침실 분리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만족도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2. 거주 주택 유형별 취침 방식

구분	안방취침방식			자녀실 취침방식			취침방식 만족도(안방)			계
	온돌	침대	침실분리	온돌	침대	침실분리	좋다	그저그렇다	나쁘다	
한옥	N	28	6	1	11	9	1	26	9	·
	%	80.0	17.1	2.9	31.4	25.7	2.9	74.3	25.7	·
1층 양옥	N	31	11	2	14	19	2	23	18	3
	%	70.5	25.0	4.5	31.8	43.2	4.5	52.3	40.9	6.8
2층 양옥	N	32	22	3	16	27	1	38	18	1
	%	56.1	38.6	5.3	28.1	47.4	1.8	66.7	31.6	1.8
아파트	N	9	25	1	6	26	1	17	18	·
	%	25.7	71.4	2.9	17.1	74.3	2.9	48.6	51.4	·
연립주택	N	10	21	1	9	20	1	22	9	1
	%	54.2	41.9	3.9	28.1	62.5	3.1	68.8	28.1	3.1
x <sup>2</sup> 검증		x <sup>2</sup> =35.255 df=8 ***			x <sup>2</sup> =26.340 df=12 ***			x <sup>2</sup> =12.808 df=8 ***		

\*\*\* p<.001

먼저 안방의 취침방식의 경우 한옥과 1층 양옥, 2층 양옥 유형에서는 온돌방식의 사용도가 통계적으로 높으나, 아파트에서는 침대식이 71.4%를 보임으로써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는 침대 사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실의 취침방식에서는 한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유형에서 온돌방식 보다는 침대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는 다르게 침대식을 많이 사용하는 자녀들의 취침방식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안방의 취침방식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주택 유형들보다는 침대식이 높게 나타난 아파트에서의 취침방식에 대한 만족도(48.6%)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안방의 취침방식과 자녀실의 취침방식, 그리고 안방의 취침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001)를 보이고 있다.

### 3. 식사 방식

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식사 방식을 밥상 이용, 식탁 이용, 절충식으로 나누어 사용도를 조사하고 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한옥에서는 밥상 이용이 51.4%로 밥상을 이용한 식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식탁을 이용함이 40.0%로 식탁을 이용하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층 양옥에서는 식탁(43.2%)을 이용한 식사방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층 양옥에서도 또한 식탁(45.6%)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밥상(43.9%)을 이용한 식사방식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식탁을 사용하는 식사방식이 71.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사방식 만족도 분석에서는 대체적으로 식사방식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05)를 보이고 있다.

표3.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식사방식 및 만족도

구분	식사방식			식사방식만족도			계
	밥상	식탁	절충	좋다	그저그렇다	나쁘다	
한옥	N	18	14	3	25	10	·
	%	51.4	40.0	8.6	71.4	28.6	·
1층 양옥	N	15	19	10	24	20	·
	%	34.1	43.2	22.7	54.5	45.5	·
2층 양옥	N	25	26	6	32	24	1
	%	43.9	45.6	10.5	56.1	42.1	1.8
아파트	N	7	25	3	24	11	·
	%	20.0	71.4	8.6	68.6	31.4	·
연립주택	N	10	19	3	18	13	1
	%	31.3	59.4	9.4	56.3	40.6	3.1
x <sup>2</sup> 검증		x <sup>2</sup> =15.875 df=8 *			x <sup>2</sup> =6.688 df=8 n.s		

\*p <.05

### 4. 응접 방식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응접방식을 좌식, 의자식, 절충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옥에서는 좌식의 응접방식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80.0%), 양옥에서도 좌식의 응접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56.8%, 56.1%) 한옥에 비해 좌식

과 의자식의 절충식으로도 응접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3%, 22.8%) 또한 아파트에서도 좌식의 응접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42.9%), 의자식의 응접방식 또한 40.0%의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주택 유형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응접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한옥에서 그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71.4%).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좋다는 대답과 그저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같은 것으로 조사되어(48.6%) 다른 주택유형들에 비해 조금 더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응접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05)를 보이고 있다.

표4.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응접방식 및 만족도

구분	응접방식			응접방식만족도			계
	좌식	의자식	절충식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한옥	N	28	5	2	25	10	·
	%	80.0	14.3	5.7	71.4	28.6	·
1층 양옥	N	25	7	12	24	18	2
	%	56.8	15.9	27.3	54.5	40.9	4.5
2층 양옥	N	32	11	13	36	19	1
	%	56.1	19.3	22.8	63.2	33.3	1.8
아파트	N	15	14	6	17	17	1
	%	42.9	40.0	17.1	48.6	48.6	2.9
연립주택	N	13	10	9	21	10	1
	%	40.6	31.3	28.1	65.6	31.3	3.1
x <sup>2</sup> 검증	x <sup>2</sup> =22.285 df=12 *			x <sup>2</sup> =9.003 df=12 n.s			

\*p <.05

### 5. 단란 방식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가족 단란 방식을 좌식, 의자식, 절충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한옥에서는 좌식의 가족 단란 방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80%), 1층 양옥에서는 좌식이 54.5%, 절충식이 31.8%, 2층 양옥에서는 좌식이 54.4%, 절충식이 28.1%로 조사되어 양옥에서는 한옥에 비해 절충식의 가족 단란 방식도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에서는 좌식(45.7%)과 의자식(40.0%)이 유사한 비율

표5.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단란방식 및 만족도

구분	단란방식			단란방식만족도			계
	좌식	의자식	절충식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한옥	N	28	3	4	27	8	·
	%	80.0	8.6	11.4	77.1	22.9	·
1층 양옥	N	24	6	14	28	15	1
	%	54.5	13.6	31.8	63.6	34.1	2.3
2층 양옥	N	31	9	16	39	16	1
	%	54.4	15.8	28.1	68.4	28.1	1.8
아파트	N	16	14	5	19	15	·
	%	45.7	40.0	14.3	54.3	42.9	·
연립주택	N	12	10	10	21	11	·
	%	37.5	31.3	31.3	65.6	34.4	·
x <sup>2</sup> 검증	x <sup>2</sup> =27.005 df=12 **			x <sup>2</sup> =8.836 df=12 n.s			

\*\*p <.01

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란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좋다는 응답이 많아 비교적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단란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01)를 보이고 있다.

### 6. 의례 방식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의례행위방식을 좌식, 의자식, 절충식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옥, 1층 양옥, 2층 양옥,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유형들 모두에서 의례행위방식은 좌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율을 살펴보면 한옥에서는 91.4%, 1층 양옥에서는 68.2%, 2층 양옥에서는 73.7%이며, 연립주택 65.6%, 아파트 51.4%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례행위방식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택유형별 전체적으로 거주자들이 의례행위방식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아파트에서는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례행위 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의례행위 방식 및 만족도

구분	의례행위 방식			의례행위 방식 만족도			계
	좌식	의자식	절충식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한옥	N	32	1	2	18	17	·
	%	91.4	2.9	5.7	51.4	48.6	·
1층 양옥	N	30	5	6	25	17	2
	%	68.2	11.4	13.6	56.8	38.6	4.5
2층 양옥	N	42	5	8	30	25	2
	%	73.7	8.8	14.0	52.6	43.9	3.5
아파트	N	18	8	9	17	18	·
	%	51.4	22.9	25.7	48.6	51.4	·
연립주택	N	21	4	7	19	13	·
	%	65.6	12.5	21.9	59.4	40.6	·
x <sup>2</sup> 검증	x <sup>2</sup> =22.484 df=12 *			x <sup>2</sup> =5.672 df=8 n.s			

\* p <.05

### III. 미래의 선호 생활 방식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미래생활방식을 취침, 식사, 응접, 가족단란, 의례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선호도를 분석해 본 결과 표 7과 같다.

우선 한옥유형에서는 미래의 취침방식으로 온돌식을 65.7%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식사방식에서는 45.7%로 밥상을 이용한 식사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식탁을 이용한 식사방식도 42.9%의 유사한 비율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응접방식과 가족단란방식, 의례방식에서는 각각 74.3%, 77.1%, 82.9%의 분포로 좌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1층 양옥유형은 미래의 취침방식으로 온돌식 취침방식을 54.5%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식사방식에서는 52.3%가 식탁을 이용하는 식사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응접방식에서는 한옥에서와는 다르게 좌식

이나 좌식과 의자식의 절충식 응집방식을 각각 38.6%, 26.4%의 유사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으며, 가족단란방식으로는 좌식이 52.3%, 의례방식에서도 또한 65.9%로 좌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층 양옥유형에서는 미래의 취침방식은 앞에서의 주택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57.9%에 달하는 거주자들이 온돌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식사방식으로는 54.4%가 식탁을 이용한 식사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응집방식과 가족단란방식, 의례방식에서는 각각 43.9%, 50.9%, 64.9%의 분포로 역시 좌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유형의 미래 취침방식으로는 60.0%의 거주자들이 침대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택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침대식의 취침방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방식으로는 65.7%의 거주자들이 식탁을 이용한 식사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응집방식에서도 의자식 선호도의 비율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좌식의 선호도가 높았던 다른 주택 유형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단란방식과 의례방식에서는 각각 42.9%, 40.0%로 좌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연립주택 유형에서의 취침방식을 살펴보면, 46.9%의 온돌식과 43.8%의 침대식 취침방식이 유사한 비율로 높게 선호되고 있으며, 식사방식에서는 식탁을 이용한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62.5%). 응집방식에서는 좌식과 의자식의 절충식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으며(43.8%), 가족단란방식 또한 절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6%). 의례방식에서는 예외 없이 앞에서의 주택 유형들의 경우처럼 좌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3.1%).

표7. 주택유형별 거주자의 미래생활방식 선호도

		한옥	1층양옥	2층양옥	아파트	연립주택	계	검증
취침방식	온돌식	23 (65.7)	24 (54.5)	33 (57.9)	10 (28.6)	15 (46.9)	105	$\chi^2=16.445$ df=8 *
	침대식	8 (22.9)	12 (27.3)	19 (33.3)	21 (60.0)	14 (43.8)	74	
	침실 독립	4 (11.4)	8 (18.2)	5 (8.8)	4 (11.4)	3 (9.4)	24	
식사방식	밥상	16 (45.7)	8 (18.2)	12 (21.1)	4 (11.4)	8 (25.0)	48	$\chi^2=16.730$ df=8 *
	식탁	15 (42.9)	23 (52.3)	31 (54.4)	23 (65.7)	20 (62.5)	112	
	겸용	4 (11.4)	13 (29.5)	14 (24.6)	8 (22.9)	4 (12.5)	43	
응집방식	좌식	26 (74.3)	17 (38.6)	25 (43.9)	10 (28.6)	10 (31.3)	88	$\chi^2=22.823$ df=8 **
	의자식	4 (11.4)	11 (25.0)	18 (31.6)	14 (40.0)	8 (25.0)	55	
	절충식	5 (14.3)	16 (36.4)	14 (24.6)	11 (31.4)	14 (43.8)	60	
가족단란	좌식	27 (77.1)	23 (52.3)	29 (50.9)	15 (42.9)	12 (37.5)	106	$\chi^2=19.104$ df=8 **
	의자식	2 (5.7)	11 (25.0)	11 (19.3)	13 (37.1)	7 (21.9)	44	
	절충식	6 (17.1)	10 (22.7)	17 (29.8)	7 (20.0)	13 (40.6)	53	
의례방식	좌식	29 (82.9)	29 (65.9)	37 (64.9)	14 (40.0)	17 (53.1)	126	$\chi^2=15.242$ df=8 *
	의자식	2 (5.7)	5 (11.4)	7 (12.3)	7 (20.0)	5 (15.6)	26	
	절충식	4 (11.4)	10 (22.7)	13 (22.8)	14 (40.0)	10 (31.3)	51	

\* p <.05, \*\* p <.01

주택 유형별 응집방식, 가족단란방식(p <.01), 취침방식, 식사방식, 의례방식(p <.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택유형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여 유형별 생활방식과 미래의 선호 생활 방식을 분석하였다.

주택 유형별 생활방식의 분석에서 취침방식에 있어 안방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주택유형을 제외하고 온돌식의 취침방식이 높게 나타나며, 자녀실의 경우는 침대식의 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취침방식에 대해 주택 유형별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사방식의 경우 한옥이 밥상이용의 비율이 높으나, 식탁이용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고, 그 외 주택유형에서는 식탁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식사방식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방식의 경우는 좌식의 비율이 대체로 높으나 아파트에서는 의자식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좌식과 의자식의 응집방식에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란방식의 경우도 좌식의 비율이 높으나, 아파트는 의자식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며 만족도 역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례방식의 경우 좌식으로 이루어짐이 절대적인데 이는 의례행위중 제사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며,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의 선호 생활방식은 우선, 식사 방식에 있어서 모든 유형이 식탁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파트 유형의 거주자들이 취침방식에 있어 침대식을, 응집방식에 있어 의자식을 미래생활 방식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유형의 거주자들, 특히 한옥 유형의 거주자들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거주자의 연령, 가족구성, 직업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분석 내용은 경주시의 역사·문화적 도시로서의 주택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 참고 문헌

1. 경주시, 2020 경주 도시기본계획, 2004
2. 김국선, 미래주거공간을 위한 전통주거공간의 정체성, 건축 0406, 54-57
3.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2000
4. 임창복, 한국도시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2
5. 임창복, 서기영, 도시주거지내 주거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 11호, 2000, 11, 121-128
6. 정무웅, 고인룡, 주거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0호 1994, 10, 73-87
7. 정준현, 도시단독주택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2
8. 최무현, 경주 기성시가지내 새로운 주택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4권, 2001
9. 최효승, 도시대중주택에 나타난 유전적 건축공간언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2
10. Rossi, A., *The Architecture of the city*, MIT Press, 1982